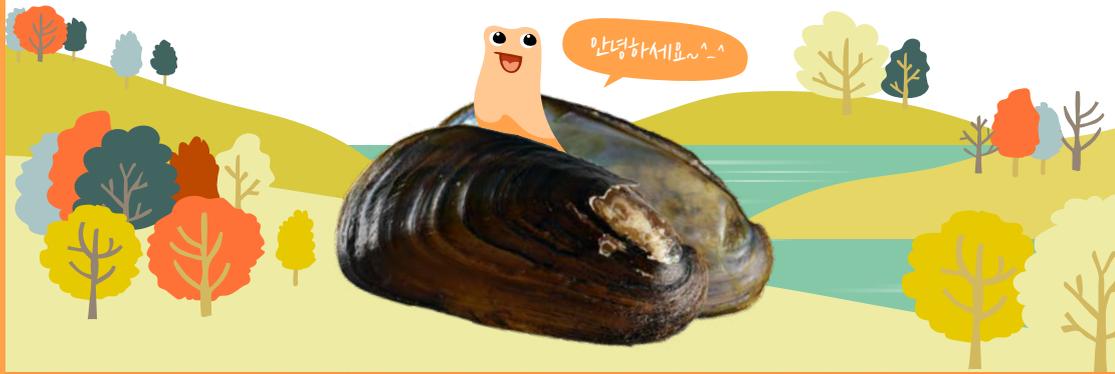


처음뵙겠습니다. (feat. 도끼조개)



석패류(石敗類)

연체동물문(Mollusca), 이매패강(Bivalvia), 석패목(Unionoida) 석패과(Unionidae)에 속하는 패류를 말하며, 대부분 담수에만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여종, 국내에는 16종이 보고되어 있다. 전국의 하천과 강에서는 말조개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종이며, 대부분 진한 갈색의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 유생 시기에 어류에 기생하여 분포범위를 넓히는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하천 개발 등으로 많은 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두드럭조개, 귀이빨대칭이 2종이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종(新種)·속(屬)

신종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고 새롭게 발표된 종으로, 공인된 전문 학술지나 단행본에 신종의 학명, 특징, 채집지, 관찰 표본 등을 발표하여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속은 생물 분류의 집합단위로 유사한 종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연체동물문(Mollusca)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종 중 2번째로 많은 종을 포함하는 분류군으로 약 1만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조개와 오징어와 같이 연체동물은 뼈가 없고 몸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영어 명칭은 라틴어의 부드러운(molluscus)에서 유래되었다.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종들은 바다, 육지, 담수 어디에서든 발견될 정도로 다양성과 적응성이 매우 높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혹시 석패류를 아시나요? 석패류는 연체동물문, 이매패강, 석패목, 석패과에 속하는 패류과를 말하며 대부분 담수에만 서식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에 사는 '말조개'가 석패류에 속해요. 석패류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여종, 국내에는 약 10여종이 보고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한 종이 추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도끼조개'를 국내에만 분포하는 신속 신종으로 새롭게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

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달천 유역의 식계보호구역에서 채집된 담수 조개를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끼조개가 신속 신종임을 확인하였어요.



충북 충주시 달천 일대 채집지

기존에는 도끼조개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비슷하게 생긴 종과 동일한 종으로 취급되었는데요 ^^_^^ 그런데 이제는 자원관 연구진 덕분에 우리나라의 도끼조개도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도끼조개의 학명은 우리나라 고유종명과 발견된 지역명을 인용하여 학명을 **코레오솔레나리아 식계엔시스(Koreosolenia sitgyensis)**로 이름 지어졌어요.

여러분, 도끼조개의 형태가 예상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아래 사진과 같이 도끼조개는 이름처럼 **도끼의 날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도끼조개는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 하천 상류 여울의 바위틈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식지와 개체수가 줄어들어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는 여울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원관 연구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끼조개 개체군의 변동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의 신속 신종인 도끼조개의 발견처럼, 미개척 분야 연구를 통해 국내 새로운 종의 발굴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신종을 발견할지! 모두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